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IRA, 미국·일본】美-日 IRA 보조금 관련 핵심광물 협정 체결

【니켈, 미국】美 포드, 인도네시아 니켈 처리시설에 45억 달러 투자

【반도체, 미국】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 공개

【반도체, 미국·대만】대만, TSMC 투자를 위한 對美 이중과세 방지 협정 요구

【반도체, 대만】대만 반도체 업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 우려

【반도체, 일본】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무역협정, 영국】영국, 유럽 국가 중 CPTPP 최초 가입

【원유, 러시아·인도】러시아-인도 원유공급 확대 및 북극항로 개발 등 협력 강화

【희토류, 중국】中 공신부, '23년 제1차 희토류 채굴 제련 총량 쿼터 발표

○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3.31)

②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 공급망 전문가

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한 美 정부기관의 노력과 과제 2편

② 수소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 생산기업 (주)상아프론테크 인터뷰

○ 공급망 소식통

① 2023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

② 2023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이슈

“제51호 -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내용 일부 정정

두 번째 표 마지막 행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① 자금조달 **원활화**

② 핵심원자재위원회*를 통해 가용 자금 논의 및 **권고**

③ △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 △회원국의 자체 금융 프로그램, △EU기금 활용 등

또한, 그 아래의 ‘역내 전략기술 관련 대기업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① 관련 대기업에 2년마다 공급망 감사 및 자체(혹은 사내, 내부) 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 [IRA, 미국·일본] 美-日 IRA 보조금 관련 핵심광물 협정 체결

- 3.28일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 체결**
 -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이 '19년 미일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변화하여 전기차 배터리 기술 보급을 촉진한다”고 발표
 - 일본은 미국과 정식 FTA 체결국은 아니지만, FTA에 준하는 광물 무역협정을 통해 대해 **美 재무부가 발표(3.31)한 IRA 세부 지침 규정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52호 뉴스 더하기① 참고)
- 협정 내용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 면제(Non-imposition) △**외국 기업의 핵심 광물 투자 모범 사례 공유** △**광물 채굴 및 가공 관련 협력** △**광물 추출 및 공급망 관련 노동권 보장 협력 노력** 등 포함
 - 이번 협정에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이 포함하며, 2년마다 협정을 갱신
 -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 마련에 합의
- EU 역시 미국과 체결한 FTA 및 그에 준하는 무역협정이 없어 **역내 기업의 IRA 보조금 수혜를 위해 미국과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 논의 중**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언론보도 종합

■ [니켈, 미국] 美 포드, 인도네시아 니켈 처리시설에 45억 달러 투자

- 미국 포드 자동차는 지난 3월 30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니켈 처리시설에 45억 달러(약 5조 8,4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
 - * 해당 사업에는 PT발레 인도네시아, 중국 저장화유코발트가 함께 참여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으로, 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혼합물(MHP) 소재가 **연간 12만 톤 분량으로 생산될 예정**
- 포드는 2026년까지 연간 전기차 생산량 200만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니켈 소재 확보를 공격적으로 추진 중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소재를 **미국 켄터키주의 블루오벌SK 공장**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
 - 니켈은 SK On을 비롯한 한국 배터리업체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재료로 약 33%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
 - **블루오벌SK**는 포드와 SK On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2024년부터 2곳의 배터리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포드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니켈을 직접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SK On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출처: 비즈니스포스트(23.0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반도체, 미국】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 공개

- 3.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세부 지침 발표
- 보조금 신청 기업은 **생산시설 예상 현금 흐름,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공식과 함께 엑셀 파일 형태로 제시해야 함**
 -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웨이퍼 예상 수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및 연도별 판매 가격 증감 폭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질소, 황산 등 소재별 비용 △소모품 및 화학품 비용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개발 비용 등의 입력 항목 제시
 - 함께 공개된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에 따르면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보육시설 운영·노동 조합과의 협력 방안도 담겨야 함**
- 반도체 업계, 각 웨이퍼 수율 및 가동률 등 美가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의 영업 기밀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반응

출처: 조선일보(3.2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미국·대만】 대만, TSMC 투자를 위한 對美 이중과세 방지 협정 요구

- 3.29일 블룸버그통신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자국 기업(TSMC)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 이중과세 방지 협정 :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국가 간 맺는 협정
- 美-대만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 부재로 대만 기업의 美 반도체 투자에 불이익 예상
-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51%(배당금 원천징수 21%, 캘리포니아주 세율 8.84% 적용 가정)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는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최소 10%p 높음
- 앨런 美 재무장관은 “美-대만 간 조약 부재가 대만 기업의 미국 투자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며, 국무부와 해법 모색 중이라고 밝힘
- 대만을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美 정부는 대만과 조약 체결이 불려올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책을 고심 중

출처: 연합뉴스(3.3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반도체, 대만】 대만 반도체 업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 우려

- 기후변화 여파로 대만 주요 공업도시 강우량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만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짐
 -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물은 웨이퍼(원판) 표면의 잔류물을 씻어내는 세정 작업 및 미세한 연마 작업에 필수이며, TSMC는 대만 남부 사이언스파크에서만 하루 9만9천 톤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저수지 다섯 곳의 저수량은 평균 44.7%(3월 말 기준)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10년 사이 기록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2021년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대만 정부 및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절약·확보 방안 모색**
 - 타이난시는 3월부터 **심야 시간 수도 수입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대만 정부는 쉬먼저수지에서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저우까지 이어지는 25km 길이의 **수로 건설**을 추진 중
 - TSMC는 2021년 가뭄 사태 이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루에 물 1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물 재활용 시설**을 사이언스파크에 건설했으며, 해당 시설의 공급 용량을 2026년까지 하루 3만6천 톤으로 확장할 계획
 - 전문가들은 대만 반도체 업계가 **기후 탄력성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
 - * 기후 탄력성(Climate Resilience):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에 대처하고 회복 및 적응할 수 있는 능력
- 출처: FT('23.03.30)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반도체, 일본] 일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동참

- 일본 정부는 7월부터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함
-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법의 하위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노광장치, 세정·검사 장치 등 23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23.03.31)
-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결정한 **미국의 조치에 동참**한 것이라는 평가
-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네덜란드는 3월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 시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출처: 조선일보('23.0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무역협정, 영국] 영국, 유럽 국가 중 CPTPP 최초 가입

- 3.30일 **영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했다고 밝힘

★T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개요

- (**출발**) '18년 3월 미국·일본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나머지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
- (**참여국**) 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 영국('23.7월 서명 예정) 12개국
- (**가입신청국가**) 중국·대만·에콰도르·코스타리카·우루과이
- (**회원국 경제 규모**) 세계 전체 GDP의 15%(약 14조8천억달러) 차지 (영국 포함 12개국 기준)
- (**협정 주요 내용**) 농수산물·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국유기업 보조금 지원 제한,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영국은 '21년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유럽 국가로선 최초로 CPTPP에 가입했으며, **기존 11개 회원국이 영국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올해 7월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
-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
- 리시 수백 영국 총리는 “이번 CPTPP 가입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자유가 가져다준 실질적 경제 혜택”이라고 강조하며, **영국은 이번 협정 가입으로 10년간 매년 18억 파운드(약2.9조) 수입 창출 전망**

출처: 세계일보('23.03.31), 한겨레('23.03.30)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 [원유, 러시아·인도] 러시아-인도 원유공급 확대 및 북극항로 개발 등 협력 강화

- 3.29일 타스 통신은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는 성명을 통해 인도 최대 원유 정제회사인 인도석유공사 (IOC)와 거래를 확대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
 - 인도에 대한 석유 공급량 확대 및 다양한 등급의 원유 제공, 원유 거래 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양국 통화로 결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사할린1' 등 양국 공동 프로젝트 진행 논의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주요 7개국(G7) 주도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서방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서방의 對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인도·튀르키예 등 국가로의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음
 - 작년 러시아-인도 교역 규모는 384억달러(약 50조)에 달하면서 러시아가 최초 인도 5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22년 러시아의 對인도 원유 수출량은 '21년 대비 22배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2위 원유수출국으로 부상
- 또한, 3. 29일 로이터 통신은 알렉세이 체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북극해 항로 개발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출처: 한겨레(23.03.30), 연합뉴스(23.03.29)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 [희토류, 중국] 中 공신부, '23년 제1차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쿼터 발표

- 중국 공신부와 자연자원부는 3.25일 '2023년 제1차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쿼터*'를 발표했으며, 채굴과 제련 쿼터를 각각 12만 톤(전년 1차 대비 +19%)과 11.5만톤(전년 1차 대비 +18.3%)으로 확정
 - * 중국은 환경보호 및 희토류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생산 총량을 기업별로 할당
 - 채굴 쿼터 중 경희토류는 10.91만톤으로 '22년 1차 대비 22% 증가한 반면, 중희토류는 1.09만톤으로 4.8% 감소
 - * 최근 몇 년간 중국 희토류 채굴 쿼터는 경희토류 위주로 증가하고, 중희토류는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
- 中 기업별로 보면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사먼팅스텐, 광동희토산업그룹 등 4개 기업에 할당, 이 중 북방희토의 할당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남은 3개사 할당량은 '22년 1차 대비 감소
 - 기업별 생산능력과 생산 효율화를 고려하여 중국희토그룹이 중희토류를 주로 생산하고, 북방희토그룹이 경희토류를 생산하는 구조가 심화될 전망
- 현지 전문가는 중희토류 자원 확보, 환경보호 이슈를 고려하여 中 경희토류 생산쿼터는 증가, 중희토류 생산쿼터는 감소 추세 유지 전망
 - 중희토류는 경희토류 대비 채굴·제련 시 환경오염 발생 정도가 심해, 최근 중국은 환경보호와 중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해 중희토류 생산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

출처: KOTRA 베이징 무역관 언론보도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3.31)

◆ 美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V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3.31)했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韓 정부·배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되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나, 中 핵심 광물 의존도 경감 등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아래와 같이 세부 지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자.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개요

- 美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방향을 예고(22.12)한 바 있으며, 세부 시행 규정 및 요건이 포함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 NPRM) 발표(3.31)
- 이번 지침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선정 방식 등에 관한 정보 상세 제공
- 4.17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게시 후 시행, 보조금 대상 적격 차량 목록도 4.18일 업데이트 후 매월 갱신 예정
- * 관련 논평 기간은 6.16일까지 진행, 이후 추가 수정 및 변경 가능성 존재 (폴리티코, 3.31)

★TIP★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22.8월)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 지급

■ 지침 주요 내용

① 배터리 부품 요건

-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전체 가치 중 50% 이상(23년 기준)이 북미지역 내에서 제조·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 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 요건은 '24~'25년 60%에서 '29년 100%로 단계적 인상 예정
- 배터리 부품 원산지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4단계 절차 제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터리 부품의 모든 제조·조립 활동이 북미지역 내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후, 해당 조건 충족 시 '북미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	개별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를 산정	개별 부품의 증분 가치를 합해 전체 배터리 부품 가치 책정 (또는 개별 배터리 모듈 가치 합산 방식으로 총 배터리 가치 책정 가능)	북미 배터리 부품 증분 가치의 합을 전체 증분 가치로 나눔으로써 북미지역에서 제조·조립된 가치 비중 계산

* 증분 가치(Incremental value): 해당 배터리 부품의 전체 가치에서 배터리 부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뺀 값

- '배터리 부품'을 공업·화학·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으로 정의하며,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
- 배터리 부품에 음극 전극, 양극 전극, 고체 금속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포함
- 韓 배터리 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 등은 국내에서 제조한 이후 양극판·음극판 제조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

② 핵심 광물 요건

-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가치의 최소 40% 이상(23년 기준)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지역(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영토 한정)에서 재활용되어야 3,750달러 보조금 수혜 가능
- 원산지 요건은 '24년 50%, '25년 60%, '26년 70%, '27년 80%로 단계적 인상

-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3단계 절차 제시

1단계	2단계	3단계
제조사는 핵심 광물 조달 체인을 추출, 가공, 재활용에 따라 분류	핵심 광물 전체 공급망(추출·가공)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자격 있는 핵심 광물'로 간주 ('23~'24년)	배터리에 함유된 핵심 광물 가치 중에 '자격 있는 핵심 광물'의 가치 비중이 최소 40%(23년 기준)가 되는지 판단

-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인니 등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으로 간주
-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의 정의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내포한 재료'라고 규정하고, 이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대상으로 명시
 - 배터리 셀 제작에 사용되는 음극재 활성용 분말, 양극재 활성용 분말, 호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 염 및 전해질 첨가제 등
 -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 →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됨

3 기타 특이사항

- 우려 대상 외국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 美 국무장관에 의해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되거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리하는 제재 대상국 국민 및 개인 등
 - '24.12.31 이후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해당 핵심 광물이 우려 대상 외국 법인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된 경우 및 '23.12.31 이후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부품 중 하나라도 우려 대상 외국 법인에 의해 제조·조립된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대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체결국 명시
 -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21개국
 - 일본의 경우, 미국과 정식 FTA 체결국은 아니나, 최근 미국과 별도의 광물 무역협정을 통해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세액공제 관련 4개 특별 지침(special rules) 수록
 - ① 차량등록번호(VIN) 하나당 세액공제 혜택 1회만 적용 가능, ② 세금 환급 신청 시 납세자는 VIN 의무 보고 필요, ③ 고소득자(연간소득 15만 달러 초과 등)에 혜택 제외, ④ 기준 권장소비자가격(MSRP) 초과 차량은 혜택 제외
- EV 세액공제 적격 차량 목록 '23.4.18(시행일)까지 지속 갱신* 예정
 - '23.4.18 또는 이후 운행(인도)된 차량은 보조금 수혜를 위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 충족 필요
 - 해당 요건은 '23.4.18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22.8.16 또는 이전에 구매한 경우는 제외됨
 - * 제조업체별 적격 자동차 목록은 해당 링크(FuelEconomy.gov)에서 확인 가능

IRA 세부 지침 공개에 따른 국내 업계 전망 및 평가

- 美 정부가 한국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려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추후 중국이 우려국으로 지정될 경우 '25년부터 중국산 광물 조달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과제 해결 필요

○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② :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 최근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럽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대응·역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 반도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반도체법 관련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자.

■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경)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증가 전망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대응 및 역내 생산역량 강화
 - EU 집행위, 동 법안을 통해 '30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20년 약 10%) 달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주요 내용)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① 단기정책권고(Recommendation)와 첨단반도체 기술 개발·생산 확대를 위한 ② 중장기계획인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
 - (단기정책권고) EU와 회원국 간 반도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 (규정)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관리, △국제협력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안

구분	세부 내용
연구·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nm 반도체, AI, 신소재 등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 연구에 투자 실시 • 양자 컴퓨터 칩, 양자 인터넷 역내 개발 등 양자기술의 상업적 응용화를 위한 연구·혁신 지원
설계·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마련, 설계·생산역량 강화 • 친환경·보안이 반영된 반도체 인증체계 수립, 공공조달 반영 및 국제표준화 노력
공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설비인 '통합생산설비' 및 '개방화 EU 파운드리' 체계 구축 • 20억 유로 규모의 'EU 반도체 기금' 조성,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반도체위원회'를 설립하고, 공급망위험평가,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 위기 발생 시 반도체 관련 우선순위 지정, 공동구매 추진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관련 주요국과 균형 잡힌 파트너십 구축 • 수출통제 정보공유 강화, 국제표준화 작업에 대한 국제협력 등

■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입법 경과 및 동향

구분	집행위 초안 (22.2월)	이사회 채택 (22.12월)	의회 상임위 채택 (23.1월)
용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조금 및 기금 승인 시, 규정 내 '최초도입'시절 기준 따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도입' 적격요건 확대 - 컴퓨터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 등 확대 • 메가팜 충족요건으로 '가치사슬 파급효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도입' 적격요건 확대 - 반도체 원자재 및 장비 제조 포함 - 생산 효율성 향상 및 부품 공급안정성 기여 포함
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가 회원국산업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공급망 위기 요인을 사전 평가 감지 - 심각한 공급망 차질 발생 경우, 위기대응시스템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발동 시 집행위 요청→이사회 표결절차 (가중다수결)추가 • 위기관리 대상 분야에 국방안보 추가, 자동차 산업 불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사태 예방위한, 정부-기업간 협력 및 협회의 정보제공 의무 강조 • 위기관리 대상 분야에 자동차산업 포함
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for Europe Initiative 33억 유로 결성 - Horizon Europe 16.5억 유로 - Digital Europe Program 12.5억 유로 - 단 4억 유로를 Horizon Europe에서 재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억 유로 자원 재검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금 규모를 유지하되 EU 다년간 지출예산(MFF)검토 시 추가재원 마련 요청

- 현재 EU에서는 입법기관별 입장 확정 후 협상 중에 있으며, 협상 완료 후 다시 의회 및 이사회에서 협상 법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 예정

◎ 공급망 전문가 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한 美 정부기관의 노력과 과제 2편

- GAO, "SUPPLY CHAIN RESILIENCE : Agencies Are Taking Steps to Expand Diplomatic Engagement and Coordin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2023/2)" 요약

지난 호에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미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USTR)의 국제 공조 확대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과제 및 극복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자.

〈美보고서 요약〉

(51호) 배경 및 현황

(52호) 과제 및 극복방안

1. 공급망 강화정책 추진 관련 애로

■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정보는 접근과 수집이 어렵고 데이터가 제한적임**
- 기업은 **내부정보의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공급망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 수집은 오직 기업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에만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 체결된 무역협정의 제한성

- **기존에 체결된 미국 무역협정은** 무역 자유화와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망 중단에 대한 해결이나 탄력성 강화에 대응이 어려움**
- 예를 들어 2017년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국가간 무역에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급망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에서는 수입을 위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원만한 교역에 장애물로 작용
- USTR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향후 체결되는 무역 협상은 **원산지 규칙 등을 활용**해 **공급망 탄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된 외교활동

-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양·다자간 **대면 회의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외교 협력 기회들이 지연됨**
-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외국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쉽지 않고 제안에 대한 상대국의 반응을 관찰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대면 회의 대비 효율성이 낮음**

2. 상무부, 국무부, USTR은 앞서 언급했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이니셔티브 개발, 공급망 문제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조치

- (산업 이해관계자 대상 공식적인 정보 요청) 상무부는 지난 '21년 9월, 공급망 병목현상 파악 및 원만한 정보 흐름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관보를 발송
- (해외 사무소를 활용한 정보 수집) 국무부 해외 사무소에서 작성되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다른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공급사슬 맵핑) 국무부는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핵심산업의 공급사슬을 맵핑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및 동맹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제품의 공급망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 (조기경보시스템) '21년 가을 국무부와 상무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와 고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취합하여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 인력 및 예산 증원요청

- 상무부와 국무부는 공급망 분석 업무 확장을 위해 추가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
 -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국제 무역관리국의 산업/분석 유닛에 ▲반도체 이니셔티브 분석능력 강화 ▲행정부의 공급망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권장 사항의 이행 ▲기타 분석 지원을 위해 38개의 직책(position)을 추가로 요청
 - 또한, 경제분석국은 국내외 시장 공급망 분석을 수행할 새로운 유닛 신설을 위해 15개의 직책을 요청
 - 국무부는 공급망 관련 장/단기적 리스크 및 회복탄력성 문제 검토와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요청

〈기관별 2023년도 추가 스태프 및 예산 요청내역〉

기관명	기존 인력	추가 요청인력	추가 요청 예산	목적
상무부-국제무역관리국	239	38 (16%증가)	10.85백만달러 (15%증액)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 분야에 대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상무부-경제분석국	495	15 (3%증가)	5.22백만달러 (5%증가)	국내외 물자의 가치사슬 분석을 위한 산업데이터와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공급망/글로벌 밸류체인 유닛 신설
국무부-경제산업국	177	7 (4%증가)	4.68백만달러 (12%증가)	세계 경제 회복과 전략적 경쟁자들에 대한 대응 관련 증가하는 사무국의 작업을 지원

3. 시사점

- '21년도 바이든의 공급망검토 행정명령 이후 미국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양/다자간 협정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력/예산 총원 등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의 공급망 이슈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함

○ 공급망 전문가 ②: 수소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 생산기업 (주)상아프론테크

지난 47호 (주)동화엔텍에 이어,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핵심 소부장 중 하나인 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을 생산하는 (주)상아프론테크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공급망 기업소개〉

(47호) (주)동화엔텍

(52호) 상아프론테크

1. 기업 소개

■ 기업 연혁

- (1974년) (주)상아프론테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2011년에 코스닥 상장
 - 기업의 모토는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
 - 세계가 신뢰하는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함
 - 이상원 대표이사는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방산업을 대상으로 첨단부품소재를 개발
- (2016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사벨트, ETFE Film, 정착벨트 등 세계일류상품을 배출
- (2021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음
- (2023년) 기업가치 약 5100억원, 소재부품 분야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상아프론테크 전경〉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 기업 핵심 생산품목

- 생산품목은 상아프론테크의 연산·코팅 기술을 활용한 ePTFE 멤브레인과 수소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
 - 국내외 MEA업체, 수소연료전지업체, RFB ESS업체, 수전해 업체 등에게 공급 중
 - 상아프론테크는 그동안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멤브레인과 수소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의 국산화 효과를 인정받아 2021년 나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ePTFE 멤브레인〉



〈강화전해질막(GREENMEM®)〉

- (ePTFE 멤브레인) 불소수지의 일종인 PTFE를 당기고 펴서, 공기능성 다공성 필름으로 제조
 -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으로서, $1cm^2$ 당 수억 개의 나노사이즈 기공이 있는 다공성 필름이며 $1nm$ 이하의 중기입자는 배출하고, 물입자($400\mu m$)는 차단
- (강화 전해질막) ePTFE에 이온교환수지를 코팅하여 만든 수소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
 - 동 제품은 미국의 고어사에서 만든 고어선택트(GORE-SELECT)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동사는 7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100만m^2$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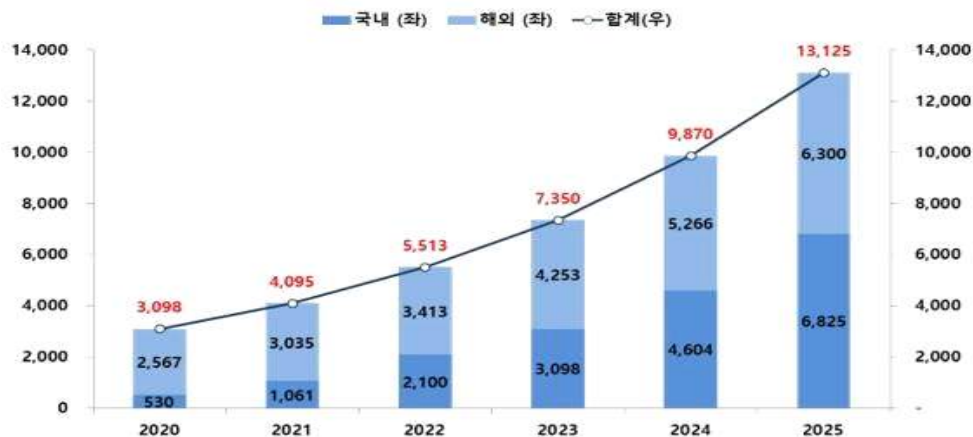
2.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강화전해질막 시장의 현황 및 미래

■ (현황) 친환경 이슈 부각으로 수소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 다만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 (환경) ESG 실사 등 환경 이슈가 선연적 수준을 넘어 공급망 주요현안이 되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됨. 한국 역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서 '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생산을 명시.
- (시장) 수소차의 핵심 소재·부품인 강화전해질막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4-5개 업체만이 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 성장세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 (전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도 신규 진입장벽은 상당기간 유지될 예정

- (공급)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막전극접합체(MEA)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예정
- (수요) Frost&Sullivan 등 주요 전망 기관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전지용 강화전해질막 시장은 2020년 약 31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약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급성장



〈수소차용 강화전해질막 시장규모(억 원)〉

3. 시사점

- 수소연료전지 관련 주요 기업들은 원재료 기술개발, 양산기반 마련, 미주 및 유럽,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확보 등 다각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 수요기업들과의 협력,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기반 마련과 수입 안정화를 동시에 대응할 필요

○ 공급망 소식통 ① : 2023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

- ▶ 사업기간 : 2023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 ▶ 개요 :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 ▶ 프로그램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 사업규모 : 2억원(민간경상보조), 112개사 내외 지원

■ 2023 OK FTA 컨설팅 사업이란?

-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능력 제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예정)기업 또는 수출협력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지원 대상: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수혜 기업은 제외되나 예외 사유 발생 시 허용
- 지원 분야: 종합 컨설팅(A유형), 기초 컨설팅(B·C유형)

유형		지원기업수	컨설팅 내용	지원일수 (MD)	지원품목수 (HS6단위)
종합*	A유형	24개사	종합 컨설팅	6~10일 (필수 6일+선택 4일)	기본 : 1~4개 추가 : 1~2개 범위 : 1~6개
기초	B유형	88개사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 컨설팅	2일 (최대 5일)	기본 : 1~2개 추가 : 1개 범위 : 1~3개
	C유형		협력기업 원산지 증명 컨설팅	2일 (최대 5일)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 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을 지원(기업선택형)

■ 신청 방법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시스템 불안정성 고려 이메일(okfta@kita.net) 접수도 가능

■ 신청 자격 및 업체 분담금

구분	세부 내용
신청 자격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2) 2년 내('21~'22)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 사업 포함) ※ 과거 FTA컨설팅 지원을 받은 컨설팅 품목(HS 6단위) 및 협정 확인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기준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사업 담당자 (okfta@kita.net, ☎ 02-6000-1380)

○ 공급망 소식통 ② : 2023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요

- 우리 기업의 **칠레 광물산업 진출지원**을 위한 세미나
- **일시/장소** : (한국 기준) '23.4.19(수) 22:30~25:40(+1) / 온라인 라이브 송출
(칠레 기준) '23.4.19(수) 9:30~12:40 / 산티아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기업에는 영상 촬영분을 사전에 제출한 메일주소를 통해 제공 예정
* 현장 참여를 희망할 경우 KOMIR에 별도 문의 요망
- **주최/주관** : (한국) 주칠레한국 대사관 / KOMIR, KOTRA, (칠레) 칠레 광업부 / 광물공사(ENAMI), 투자청(Invest Chile)
- **사업 내용** : 칠레 광업 관련 사업기회 소개 및 발굴(유망 탐사 프로젝트·광미 재처리·제련소 등)
칠레 리튬 개발 및 밸류체인 구축 사업 참여방안 등 소개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한국 기준)	내용
22:30~23:0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및 개회사 · 영상: 한국의 지속가능한 광업 정책 소개 (KOMIR, 5분) · 소개: 칠레 광업투자 개요 (InvestChile, 5분)
23:00~24:10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광물공사(ENAMI) 프로젝트 소개 및 제안 · 칠레 광업 비즈니스 개발 관련 ENAMI의 유망 P/J (15분) · 대규모 광업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 (15분) · ENAMI 제련소 프로젝트 (15분) · 질의응답 및 토론 (10분)
24:30~25:40(+1)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리튬 프로젝트 및 전략과제 · 국가 리튬·염호 전략 (광업부, 15분) · ENAMI 리튬 프로젝트 (ENAMI, 15분) · 리튬 밸류체인 강화 프로젝트 소개 (CORFO, 15분) · 질의응답 및 토론 (10분)

* 발표주제 및 발표자는 추후 일부 변동 가능

■ 참가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3.31(금)~4.12(수)
- 참가 방법 : ① [2023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나\(클릭\)](#)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업 카탈로그 첨부 필수)



② QR코드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처 : (참가신청)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김연진 대리 ☎ 02-3460-7765 / ellie.kim@kotra.or.kr
(행사관련) KOMIR 칠레사무소 (komirchile@komir.info) / KOTRA 산티아고무역관 (santiagokotra@gmail.com)

글로벌 경제지표('22. 4. 5. 수)

[환율]

	'21말	'22말	'23.3말	4/3	4/4	4/5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01.90	1,316.50	1,315.80	1,310.50	△0.40	3.64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98.80	1,314.20	1,313.50	1,308.10	△0.41	3.38
₩/CNY	186.51	181.44	189.13	191.18	191.39	190.75	△0.33	5.13
₩/¥100	1,032.48	945.56	979.61	984.74	991.71	996.65	0.50	5.40
Y/U\$	115.14	133.73	132.90	133.69	132.68	131.49	△0.90	△1.68
U\$/EUR	1.1318	1.0617	1.0890	1.0806	1.0898	1.0951	0.49	3.15
CNY/U\$	6.3681	6.9630	6.8670	6.8887	6.8820	6.8780	△0.06	△1.22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78.5, (₩/¥100) 965.7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 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4.4(전일)	'23.4.5				
					전일비(4.4)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4.10	85.08	1.0	13.3	6.3	
					1.2%	18.4%	8.0%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2.40	121.10	△1.3	41.6	3.8	
					△1.1%	52.3%	3.2%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966.00	8,930.00	△36.0	1930.0	543.0
						△0.4%	27.6%	6.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80.50	2,341.50	△39.0	261.5	△19.0
						△1.6%	12.6%	△0.8%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3,560.00	22,910.00	△650.0	3810.0	△7515.0
						△2.8%	19.9%	△24.7%

[반도체]

	'21	'22	'22.12월	'23.1월	'23.2월	3/31	4/3	4/4	4월(~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05	1.93	1.83	1.66	1.66	1.65	1.65
(%, YoY)	29.9	△23.0	△40.3	△48.2	△52.9	△54.9	△54.6	△54.5	△54.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1	6.46	6.40	6.40	6.40	6.40
(%, YoY)	14.7	10.7	△12.4	△13.7	△15.5	△20.5	△20.8	△20.9	△20.9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3.10	3.17	3.24	3.31		
							전주비(3.24)	'21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06.55	909.72	908.35	923.78	1.72%	△81.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3.10	3.17	3.24	4.3	4.4		
								전일비(3.27)	'21년말비
BDI	2217	1515	1424	1535	1489	1412	1473	4.3%	△33.6%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구독>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피드백>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